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 비교 연구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이민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수정***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이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이밍과 소외된 프레이밍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이밍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법적 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이밍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이밍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이밍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 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호주제, 프레이밍, 여성운동

* 본 연구는 2005년도 중앙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minlee@cau.ac.kr

*** su808@naver.com

1. 연구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법적, 사회적, 정치적 위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하나는 2005년 2월 ‘호주제(戶主制) 헌법 불합치’ 결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한 호적에 등재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공식적인 판결이자 개정해야 하는 제도로 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호주제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만의 특수한 법안으로 이 법에 따르면 남성이 우선적으로 가족의 주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요지로,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큰 영향 주어왔다. 호주제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자발적인 부권 사회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아울러 가정내 부권강화를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여성들의 재산형성과 독립적인 경제생활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자식이 있는 이혼여성이 재혼을 하더라도 친부(親父)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친모(親母)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도 이 제도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김경희, 2004, pp. 384~387; 곽배희, 2003).

가족법 개정의 주요한 주장 속에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유교중심적인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으며, 시대의 윤리를 앞세운 진보적 개혁의 목소리이기도 하였다. 1999년 5월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2000년 9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호주제 위헌소송이 진행되었다. 그 후 2004년에는 호주제를 주제로 5차례의 공개변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호주제가 “양성평등 및 개인의 존엄성을 천명한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위배 된다”는 결정을 함으로 반세기에 걸친 호주제 존폐 논란의 막을 내렸다.

이제까지 남성중심의 문화를 사회적 보편문화로 대변하던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권운동은 특수한 것으로 비쳐져 왔고, ‘여

성'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우리 사회의 언론은 소극적이고 단편적 사건 위주의 보도성향을 보여 왔다(김선남, 2002; 김훈순, 2004). 여성운동은 단순화되거나 소수의 문화, 혹은 주변화 된 활동으로 간주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이제까지 여성 권리 향상 문제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사회사건 보도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 주변적으로 보도되었다(김훈순, 2004; Tuchman, 1978, p. 8).

그러나 언론은 공공 이슈에 대한 이해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보편적 상식으로 여겨지도록 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제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과 관련해서 대중들이 사회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창으로서 특정한 '틀'(frame)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언론보도에서 호주제 존폐 논란과 같은 법적,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두고 어떠한 '틀짓기'(framing)를 하는가는 곧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해 문제인식이나 문제이해,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차이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호주제 존폐 논의와 같이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갈등 이슈를 한국의 대표적인 신문들이 어떻게 틀짓기를 시도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프레임 분석 연구를 적용해 보려 한다. 호주제를 연구하는 까닭은 이 사안이 그 자체적으로 다차원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갈등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 제시 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뉴스 프레임 연구를 통해 언론보도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보도하는가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언론이 호주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제도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호주제 존폐를 둘러싼 여러 사건이나 쟁점을 언론사별·시기별로 어떻게 보도하는지, 나아가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찬반의 논쟁 속에서 어떤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더 부각시키고 소외시키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사회적 쟁점과 뉴스 프레임링

많은 언론학자들에 의해 접근된 프레임링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상의 사회적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심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요소들이 선정되고 인용되어 연관을 맺도록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돕고 있다(Gamson & Modigliani, 1989; Gitlin, 1980; 김원용·이동훈, 2004). 특히 수용자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다. 고프만은 프레임에 “사건들(최소한 사회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우리의 주관성 및 사건을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칙에 따라 구축되는 상황에 대한 정의”로 요약한다(Goffman, 1974, pp. 10~11). 즉, 우리가 당연한 사실로 여기는 현상의 본질에 대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프레임 연구의 시작점으로 두고 있다. 또한 터크만(Tuchman, 1978)에게 뉴스 프레임이란 위치에 따라 창 밖 풍경이 다르듯이 뉴스 그 자체역시 사회적 행위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자원이 됨을 의미한다. 기틀린(Gitlin, 1980)의 프레임에 대한 정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변하지 않는 주어진 이야기를 능가하는 관습적인 조직화라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엔트만(Entman, 1993)은 미디어가 프레임을 한다-즉 프레임링-이라는 것은 선택과 현저성을 포함시킨다고 보았다. 프레임한다는 것은 지각된 현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는 것이고, 텍스트에서 보다 강조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같은 방식은 텍스트 안에서 불확정적인 정의와 인과적 해석, 도덕적 평가 그리고 대안제시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그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다. 프레임링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하나의 개념에 대한 정보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의 현저성을 높이는 전략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뉴스 프레임링 연구의 접근방식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프레임이나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D'Angelo, 2002; Ghanem, 1997). 뉴스의 주제는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링 방식들에 의해 진술되어질 것이다. 뉴스 프레임링 방식들

이란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요소 혹은 유형에 대한 추출을 목적으로 하며, 뉴스에 나타난 프레임이 사회·정치적 배경을 고려할 때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텍스트적인 뉴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과 이미지까지도 포함한 내용적 측면에서 프레임 방식이 내용에서 어떻게 도입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즉, 뉴스 프레임을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성하는 원인으로 규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뉴스 프레임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이나 관료, 사회운동단체, 언론사 등은 특정 사안을 일정한 입장으로 규정하려 든다. 여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까지도 포함한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해 갠슨(Gamson, 1990)은 프레임링을 공공 정책 이슈에 대한 집단적 이해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체의 담론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집단적이고 개방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공공의 구성원은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을 개발하고 이러한 의미를 일상생활의 상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미디어 담론, 개인적 경험, 대중의 지혜에서 비롯되는 상징적 의지 수단들을 활용함으로써 공공 정책의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가 이야기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용자들의 인식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준용(1997)은 프레임링을 뉴스가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로서 조직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독자 및 시청자에게 특정 이슈나 사건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담론적 영향으로 부각되는 프레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들의 인식을 조종하려 들지도 모른다. 뉴스 프레임은 인식적 차원에서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개개인들은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는 정신구조를 사용하여 정치쟁점에 반응하려고 한다. 이는 수용자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기 이전에 특정 프레임을 통해 이미 정보에 대한 처리방식을 결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뉴스 프레임링은 기사의 속성 외에 개인의 스키마나 이슈에

대한 담론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보편적인 문화 혹은 해석의 경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 프레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스 프레임 연구는 “어떻게” 프레임이 정치적 행위자들을 그려내고 있는가, 혹은 “어떻게” 언론인들은 뉴스의 내용 구조에서 프레임에 의해 변화되는가, “어떻게” 이야기들이 프레임을 구조화시키는가, “어떻게” 프레임이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Carragee & Roefs, 2004; Entman, 1991; Gamson, 1992; Reese, Gandy & Grant, 2001).

프레임 메커니즘은 미디어에서 강조되는 방식과 관련된다. 즉, 뉴스 자체를 두드러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같이 강조하는 방법으로 사진이나 도표, 중간제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종종 어떤 이슈를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엔트만(Entman, 1991)은 주간잡지의 표지 구성과 제목, 정보원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 미디어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가와 평가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다. 현실의 특정한 측면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 묘사된 현실의 한 측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식의 규모의 조정을 프레임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강내원(2002)은 뉴스 기사에 대한 양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기자나 언론사의 입장이 어떻게 제시되는가를 비교했다. 정보원이 누구이며, 정보원의 층위가 어떠한가가 갈등 사안에 대한 다양한 프레임 간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 속 등장인물들은 김원용과 이동훈(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뉴스 제작 과정 요인들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강조된다. 기사는 기사 작성에 있어서 뉴스 조직에 의한 사회화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정보원의 활용태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사건에 대한 인식적 요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사유형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뉴스 작성에 있어서 스트레이트 기사유형은 단순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신문은 방송사에 비해 사건을 진단하고 문제점과 갈등에 대한 진단, 전망 등의 의견이 담겨있는 보도를 사설 및 칼럼에서 하는 경향이 짙다. 예를 들면 의료분쟁에 대한 모든 기사유형을 대상으로 프레임의 양을 비교한 양정혜(2001)의 연구는

언론사가 사건에 대한 논평이 드러나 있는 경우의 차이를 배제한 채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비교한 것은 언론사간 논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반해 정재철(2004)의 연구는 사실과 칼럼에서 유전자 관련 프레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것 역시 단순 보도된 기사를 무조건 포함시키지 않고 분석한 측면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이준웅(2005)은 통일 및 북한 관련 사실 속에서 제시하는 뉴스 프레임이 공중의 해석적 프레임과 유사한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언론의 보도 양 보다는 뉴스 프레임의 구성이 수용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속 프레임과 수용자의 동의 정도를 통해 보여주었다. 일반적인 기사 유형과 더불어 신문의 논평이 들어가는 사실과 칼럼을 동시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따로 분리하여 연구한다면 기존 연구에서 지적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한편 프레임의 형식적 조건들을 이옌가(Iyengar, 1991)는 ‘사건중심적 뉴스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중심적 뉴스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구별했다. 정치적 이슈 혹은 사건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및 문제에 대한 사건 중심의 묘사가 주를 이룰 경우를 사건중심적 뉴스 프레임이라고 구분했다. 또한 이슈의 구조적인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주제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인지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일명 ‘책임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에 대한 연구로 불리는 이것은 이옌가에 따르면 사건중심적 프레임은 사태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고, 주제중심적 프레임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전개된다. 프레임의 차이가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연구로 꼽힌다. 김선남(2002)은 매매춘 관련 방송 뉴스가 주제중심적일수록 심층적 보도가 이루어졌고, 사건중심적으로 보도할 경우 일시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프레임은 사람들이 특정 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 프레임 연구의 분류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프레임 연구는 미디어 프레임이 독립

변인으로 쓰이는 경향에 관한 것으로 구분 될 수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족법 개정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이슈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방법이 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인용되어지는 주장 혹은 제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만약 다양한 시각과 주장들이 호주제 존폐 여부와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다면, 호주제를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었음을 암시할 것이다. 반면 제한된 수의 시각과 주장들만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면, 호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이해관계 구조에서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거나 혹은 언론이 최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호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사용된 프레임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연구문제 1은 호주제에 대한 언론보도의 시각과 주장이 어떠한 틀을 근거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제에 대한 각 신문의 뉴스 프레임이 어떠한 논의의 차원을 지니고 있는지, 호주제 논의의 구체적인 성격은 어떠한지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언론사별·기사 유형별 호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호주제와 관련된 입장의 다양성은 언론보도의 프레임링 과정에서 언론사의 이념적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사 보도나 사설 등을

통해 언론사가 어떠한 입장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한편 언론 보도에 있어 호주제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등장주체는 어느 계층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호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프레임은 사건중심적인가, 주제중심적인가?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주로 어떤 형식상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형식상 프레임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이옌가와 사이몬(Iyengar & Simon, 1993)이 사건중심적 뉴스 프레임과 주제중심적 뉴스 프레임을 구분하였고 김선남(2002)의 사건과 주제중심 프레임을 혼합한 프레임을 추가로 구분하였다. 사건중심적 뉴스 프레임은 사태의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돌리는 역할을 하고, 주제중심적 프레임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식으로 전개된다. 호주제 이슈에 대한 이러한 프레임 구분은 두 가지 방식의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4. 연구 대상 및 방법

호주제와 관련된 언론보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프레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는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신문 뉴스를 뉴스기사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KINDS: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통해 확보했다. 3개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진보와 보수라는 상반된 이념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신문으로서 호주제와 관련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택하였다. 또한 국민일보는 창간부터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양성평등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호주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신문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선택하였다.

총 분석 시기는 카인즈에서 분석가능 한 1990년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의 '호주제'라는 주제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기사를 추출하였는데, 조선일보에서 1990년 2월 1건, 9월 1건, 국민일보에서 92년 2월 1건, 한겨레에서 92년 12월 1건을 시작으로 보도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후에 분석자가 기사를 하나씩 읽어가며 프레임 분석에 적합한 분석대상 기사를 대상으로 기사의 종류, 주요 등장인물, 프레임의 종류, 작성자 등을 분석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일반인,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법조계, 정부관련 인사로 구분하였다. 등장인물은 1차적으로 기사의 정보원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2차적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5가지의 사회적 계층으로 변환하여 재코딩하였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조를 반영하여 시민단체에서 찬반의 입장을 구분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전문가 집단은 교수, 연구원, 학자 등을 포함했고 정부관련 인사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인들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이슈중심 프레임과 주제중심 프레임, 이슈+주제중심 프레임을 분석했다. 프레임 분석에 적합한 분석대상 기사는 국민일보 211건, 조선일보는 205건, 한겨레가 276건으로 총 692건이었다.

뉴스 프레임 추출방법은 기존의 프레임 관련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이슈와 사안에 대한 맥락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새로운 프레임을 도출하는 귀납적 분석방법을 적용시켰다. 이 방법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개별 뉴스 기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프레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강내원, 2001, 2004; 양정혜, 2001). 이와는 반대로 연역적 방법은 특정의 사회체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는 그러한 체계를 반영하는 프레임이 존재한다고 보고, 정형화된 프레임들에 의거하여 연구대상을 분석한다. 김원용·이동훈(2005)이 개별 뉴스상의 프레임 형식에서 보편적 유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호주제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례이며, 호주제 폐지가 사회적 갈등사안으로 떠오른 이유도 유교적 전통주의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가 맞물린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사회맥락적인 특성을 고려한 프레임 속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귀납적인 프레임

도출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호주제 관련 뉴스 기사에서 논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려하는지를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일제문화 청산’, ‘남녀성비의 불균형 초래’, ‘남성중심법’, ‘반인권적 관습의 철폐’, ‘여성 권위 향상’, ‘양성평등의 과정’,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유림-여성계 간의 여론분열’, ‘가족법 개정의 과정’, ‘한국적 관습의 위기’, ‘가정을 이끄는 관습’, ‘사회변화를 고려한 법 개정의 요구’, ‘여성문제 해결에 기여’ 등의 총 22개의 프레임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프레임은 명칭이나 속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프레임들간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가치중립적인 용어 사용하여 <표 1>과 같이 최종적으로 총 3개의 속성에서 6개 차원의 프레임을 도출하게 되었다. 먼저, 일제문화청산과 한국적 관습의 위기, 반인권적 관습 철폐, 남녀성비의 불균형 초래, 남성중심법 등은 ‘호주제 자체(존재)와 관련된 속성’으로, 정치적 성향 파악의 잣대, 가족법 개정의 과정 등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치적/법적 논의와 관련된 속성’으로, 여성문제 해결에 기여, 양성평등의 과정, 사회변화를 고려한 법 개정의 요구, 유림-여성계간 여론분열 등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속성’으로 재구성하였다. 다른 이에 각각의 차원으로 도출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구자에 의해 전체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다른 코더 한 명에게 연구자의 연구방법을 완전히 교육시켜 동일하게 전체 분석대상의 20%를 코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른 코더에게는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대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담은 코더교육을 실시하고 코딩용지를 전달했다. 코더간 신뢰도 검증은 단일 코더가 정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일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둘 간의 단순 일치도는 76%로 측정되었다. 이 가운데 우연에 의한 일치율을 제거한 스코트 Pi값은 0.68로 측정되었다.

<표 1> 호주제 관련 뉴스의 프레임 속성과 차원에 대한 설명

속성	차원	프레임 설명
호주제 자체(존재)와 관련된 속성	일제문화의 잔재 (F1)	·호주제를 일제문화의 한 종류로 보는 견해로 전통적인 유교적 관습이 아니었음을 주장 ·한편으로 호주제가 역사적·시대적 상황에 의해 만들어져 시행되어왔음을 인정하는 입장을 견지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F2)	·호주제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온 전통적 관습의 하나이며, 이는 한국적 가족중심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 ·가정을 이끌어온 전통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남녀성비의 불균형과 남성혈통 중심사회를 만드는 기초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도 포함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치적/법적 논의와 관련된 속성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F3)	·정당의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후보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잣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이 단서로 사용되는 경우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따라 진보와 보수 의 입장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강함
	가족법 개정의 절차와 과정 (F4)	·호주제에 대한 위헌판결까지의 내용과 과정 등을 서술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안 제출 및 입법예고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관한 보도를 포함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속성	사회변화의 반영 (F5)	·사회변화에 따른 윤리의 변화를 강조하며, 여성문제의 해결과 가정형태 변화에 따른 요구로서 호주제를 바라보는 입장을 포함
	유럽-여성계 간 여론분열 (F6)	·호주제 폐지 논쟁을 사회적 쟁점으로 바라보고 여론의 분열이나 혼란,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서 호주제를 규정함

5. 분석결과

1) 호주제 관련 기사 수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의 움직임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1999년 11월 여성단체연합의 호주제폐지운동본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주제 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결의하면서 언론에서도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했다. 호주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제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적지 않지만 한국사회에서 호주제 관련 논의가 시작된 발단시기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하고자 한다. 1990년대는 사회적으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기 시작한 때인 만큼 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를 ‘호주제 폐지 논의에 대한 잠재기’로 보고자 한다. 이어서, 2001년 4월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기까지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를 ‘호주제 폐지 논의의 발단기’, 그리고 2003년 3월 대통령 인수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기 이전까지인 2001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를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전개기’, 호주제 위헌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계속되고 결국 2004년 12월에는 여야 정당 모두 민법 개정안을 통과할 것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인 2003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절정기’로 보았다. 또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호주제 대체 신분등록 방안에 대한 구상이 이어지는 시기를 ‘호주제 폐지 후 논의의 마무리기’ 등으로 전체적인 기간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호주제 존폐 논란과 관련한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기사 수에 대해 <표 2>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호주제의 존폐 논의와 관련하여 세 신문사간 기사 수에 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다른 두 신문의 보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양의 기사를 다룬 반면, 조선일보는 국민일보보다 기사 수가 적으나 호주제 폐지 논의의 마무리기인 제5시기에 들어서 상대적으로 관련기사 건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기사유형별·시기별 따른 기사 수 비교

	제1시기			제2시기			제3시기			제4시기			제5시기			소계			계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국민 일보	조선 일보	한겨 레	
스트 레이 트	6	6	10	10	4	17	35	24	35	50	34	49	26	27	36	127	95	147	369
	50.00	40.00	43.48	50.00	28.57	42.50	70.00	51.06	56.45	60.98	43.04	56.32	55.32	54.00	56.25	60.19	46.34	53.26	53.32 %
칼럼 및 논단	1	3	4	1	2	7	4	4	3	14	27	17	10	13	12	30	49	43	122
	8.33	20.00	17.39	5.00	14.29	17.50	8.00	8.51	4.84	17.07	34.18	19.54	21.28	26.00	18.75	14.22	23.90	15.58	17.63 %
기획· 연재	4	5	9	9	8	15	10	13	13	8	10	7	3	6	5	34	42	49	125
	33.33	33.33	39.13	45.00	57.14	37.50	20.00	27.66	20.97	9.76	12.66	8.05	6.38	12.00	7.81	16.11	20.49	17.75	18.06 %
통계 성문 조사	1	1	0	0	0	0	0	0	3	4	2	4	1	0	3	6	3	10	19
	8.33	6.67	0.00	0.00	0.00	0.00	0.00	0.00	4.84	4.88	2.53	4.60	2.13	0.00	4.69	2.84	1.46	3.62	2.75 %
인 터 뷰	0	0	0	0	0	0	0	0	1	3	4	7	2	2	2	5	6	10	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61	3.66	5.06	8.05	4.26	4.00	3.13	2.37	2.93	3.62	3.03 %
사설	0	0	0	0	0	0	1	2	7	3	2	3	5	2	6	9	6	16	31
	0.00	0.00	0.00	0.00	0.00	0.00	2.00	4.26	11.29	3.66	2.53	3.45	10.64	4.00	9.38	4.27	2.93	5.80	4.48 %
취담 내담	0	0	0	0	0	1	0	4	0	0	0	0	0	0	0	0	4	1	5
	0.00	0.00	0.00	0.00	0.00	2.50	0.00	8.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95	0.36	0.72 %
총	12	15	23	20	14	40	50	47	62	82	79	87	47	50	64	211	205	276	692

주: 제1시기-호주제 폐지 논의의 잠재기(1990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제2시기-호주제 폐지 논의의 발단기(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제3시기-호주제 폐지 논의의 전개기(2001년 4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제4시기-호주제 폐지 논의의 절정기(2003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제5시기-호주제 폐지 논의의 마무리기(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표 2>에서 보듯이,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보도 기사중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절정기’ 동안에 기사가 가장 많았다(n=248, 전체의 35.84%). 한편 총 692건의 기사 가운데 약 53%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획·연재(n=125, 전체의 18.06%)와 칼럼 및 논단(n=122, 전체의 17.63%) 기사가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별로 보면, 국민일보의 경우 전체의 60%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이에 반해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각각 46.34%, 53.26%로 두 신문의 기사유형이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국민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기획·연재 기사가 칼럼 및 논단 기사의 양보다 많은데 비해 조선일보는 이와 반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겨레는 사설(n=16, 전체의 5.80%)의 빈도가 높았으며, 국민일보의 경우도 사설(n=9, 전체의 29.03%)의 빈도가 높았으나 다른 두 신문과 비교해 볼 때, 좌담·대담 기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호주제 존폐 논의에 있어서 국민일보와 한겨레가 스트레이트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조선일보는 칼럼 및 논단, 기획·연재, 좌담·대담의 기사 수가 많은 것을 볼 때 언론사간의 보도성향 차이를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호주제 존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사회적 논의에 중요한 시안으로 사회적 쟁점화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 사설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만큼, 이것은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과 보도내용의 사회적 안전이 잘 부합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사설의 빈도가 낮고 칼럼 및 논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과 보도내용의 사회적 영향이 비교적 일치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사설보다는 여론지도자 층이나 외부인사의 청탁 혹은 기고의 보도량이 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부각되는 프레임, 소외되는 프레임

<표 3>은 호주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시기에 따른 언론사별 프레임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n=316, 전체의 36.11%)과 관련된 프레임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n=155, 전체의 17.71%)과 ‘가족법 개정 및 절차’(n=151, 전체의 17.26%) 프레임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n=129, 전체의

14.74%), ‘유림, 여성계간 여론분열’(n=95, 전체의 10.86%), ‘일제문화의 잔재’(n=29, 전체의 3.31%)순이었다.

호주제 폐지 논의의 잠재기는 가장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프레임의 분포(n=58, 전체의 6.62%)를 보였다. 국민일보에서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선일보에서는 유독 ‘유림, 여성계간 여론분열’ 프레임이 우세하게 분석되었다. 이는 조선일보의 이념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호주제 존폐와 관련된 논의가 사회적 갈등 이슈로서 보도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파악된다. 국민일보에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프레임이 다른 두 신문보다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 폐지해야 41.7%(1999년 12월 8일자)”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호주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하였다. 30대 이하는 호주제 폐지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40대 이상은 존속을 주장하는 쪽이 많다고 분석하면서 세대간 갈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유림 가족법 재개정 요구 여성계와 다시 논란 벌일 듯(1990년 9월 19일자)”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림들이 가족법재개정 요구에 대한 거센 촉구집회를 다루면서 반대 입장인 여성계와 팽팽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이 밖에도 1993년과 1997년은 대선을 전후한 시기였기 때문에 각 당의 여성정책중 하나로 호주제가 언급되는 경향이 짙다. 199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부모성 같이 쓰기’ 선언이 있는 직후 호주제 관련 토론회 및 정부인사의 여성정책, 호주제 폐지 100만명 서명운동, 성비 불균형 타파 문화 한마당 등에 대한 신문보도가 호주제의 문제점과 맞물려 보도되었다. 전체적으로 1990년대 시기는 호주제에 대한 여성계의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근거제공은 대부분 여성단체연합 혹은 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학회의 조사자료, 통계, 토론회의 내용이 주요 보도내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주체적으로 여성의 법적지위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는 보도보다는 여성단체의 관련 자료에 의존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호주제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구체적인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토론회 혹은 단체들의 행사내용에 치우치는 사건중심적인 보도에 치우쳐 있다고 보여진다.

호주제 폐지 논의의 발단기(n=96, 전체의 10.96%)에는 국민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의 분포의 크기가 더 크다. 한겨레의 경우 호주제 자체 속성과 관련된 차원의 논의인 ‘일제문화의 잔재’와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우세한 것은 호주제의 존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우 전체적으로 다른 두 신문보다 기사 수가 감소하였고, ‘가족법 개정 및 절차’와 관련된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겨레의 “영안실에 배다른 남동생이 나타나 호주자리 내놔(2000년 3월 21일자)” 기사에서는 호주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해주던 제도이며 민족 고유의 전통인양 끌어안는 한 양성평등은 요원하다고 논평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시민연대 및 여성단체연합의 활발한 여성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전개기에 들어 세 신문사 모두 프레임의 양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이 분포되고 있으나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가장 두드러진다. 한겨레는 ‘정치적 성향과악의 잣대’ 프레임이 다른 두 신문보다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기는 여성부의 정책결정과 시민단체의 토론회 등을 민감하게 보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위해 기독교 여성 나섰다(국민일보, 2001년 10월 16일자)”, “호주제 폐지 기독교여성 한마음 동참(국민일보, 2001년 10월 10일자)” 등과 같이 국민일보의 경우 창간 이념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음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일보가 다른 두 신문보다 지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성향과악의 잣대로서의 호주제 관련 보도가 집중되는 것을 통해 다른 언론사보다는 정당의 호주제 존폐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 성향과 연관성

이 있다는 보도를 많이 했음을 지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이것이 이슈다 (2)유교와 페미니즘은 적인가(조선일보, 2002년 3월 19일자)”에서는 좌담형식을 통해 유림과 여성계의 주장이 대립되는 양상에 대해 분석의 틀을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호주제 폐지 및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과 관련한 사회적 대우 및 권익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입장 차이를 갈등구조로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는 프레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여성정책 혹은 여성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남성 의원들 간의 갈등정도가 중점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호주제 사안에 대한 정치·법적 논의의 차원에 속하는 프레임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호주제 존재에 대한 현상적인 입장차이만을 부각시킬 뿐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호주제를 둘러싼 사회 제반의 문제점, 그리고 호주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피력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의 적용은 호주제를 여성정책의 한가지로 바라볼 뿐 사회적 인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복지문제의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는 언론사의 전문성 결여와 논조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절정기에는 각 신문사의 프레임 분포량이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호주제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이 이뤄졌고, 여성계와 유림의 상반된 의견대립이 잇달아 언론보도를 통해 전달되기도 했던 시기다. 이에 따라 각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을 가진 보도가 늘어났다. 또한 정치적·법적 차원의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의 프레임들이 제3시기에 이어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2004년 4·15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각 당의 정책적 입장 가운데 호주제 논의가 매우 구체적인 잣대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일보는 “총선 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2004년 3월 22일자)”에서 특정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권자의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책 비교의 내용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입장차이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겨레의

경우 기획·연재 기사를 통해 ‘17대 국회에서 바로 펴야 할 법’으로 호주제를 지적하고 나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주장함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특정 국회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때 한겨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열린 우리당은 당론을 이미 확고히 결정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론으로 확정되고 있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방송 드라마를 통해 호주제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 및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고 개선해야 할 법으로 여론이 모아지면서 세 신문의 보도의 태도도 법률개정에 대한 찬성의 입장으로 일제히 보도의 태도를 굳히게 된다.

호주제 폐지 논의의 마무리기에서 각 언론사의 관심은 가족법의 개정 및 위헌판결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더불어 기사 내용상에 주요 등장주체를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정부계 인사(n=274, 전체의 35.63%)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시민단체(n=175, 전체의 22.76%), 일반인(n=120, 전체의 15.60%), 법조계(n=112, 전체의 14.56%), 전문가(n=88, 전체의 11.44%)순이었다. 국민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시민단체의 비중이 높고, 조선일보의 경우 일반인 칼럼의 비중이 많았다. 조선일보의 경우 일반시민의 칼럼을 싣는 지면이 많은 것이 일반시민의 외부기고가 많은 까닭으로 분석된다. 한겨레의 경우 정부계 인사와 시민단체간의 등장인물 빈도가 높은 반면, 국민일보는 전문가의 비중은 작고, 법조계 인물의 비중을 늘리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 논의를 부각시키려 했다면 국민일보는 법적 논의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의 언론사별·시기별 프레임 비교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합계
	1 시기	2 시기	3 시기	4 시기	5 시기	소계	1 시기	2 시기	3 시기	4 시기	5 시기	소계	1 시기	2 시기	3 시기	4 시기	5 시기	소계	
F1	0	1	5	3	1	10	0	1	1	2	1	5	1	4	0	5	4	14	29
	0.0	10.00	50.00	30.00	10.00	3.52	0.0	20.00	20.00	40.00	20.00	1.96	7.14	28.57	0.0	35.71	28.57	4.17	3.31
F2	3	3	10	20	12	48	7	4	8	22	9	50	12	13	11	15	6	57	155
	25.00	14.29	15.38	18.69	15.19	16.90	35.00	21.05	15.69	23.91	12.33	19.61	46.15	23.21	16.43	14.71	6.98	16.96	17.71
F3	2	1	10	11	11	35	1	1	9	15	9	35	1	3	21	17	16	59	129
	16.67	4.76	15.38	10.28	13.92	12.32	5.00	5.26	17.65	16.30	12.33	13.73	3.85	5.36	31.34	16.67	18.60	17.56	14.74
F4	1	5	4	18	14	42	3	7	2	14	22	48	2	9	4	21	26	61	151
	8.33	23.81	6.15	16.82	17.72	14.79	15.00	36.84	3.92	15.22	30.14	18.82	7.69	16.07	5.97	20.59	30.23	18.15	17.26
F5	6	11	32	38	28	115	5	5	26	23	22	81	10	25	31	31	24	120	316
	50.00	52.38	49.23	35.51	35.44	40.49	25.00	26.32	50.98	25.00	30.14	31.76	38.46	44.64	46.27	30.39	27.91	35.71	36.11
F6	0	0	4	17	13	34	4	1	5	16	10	36	0	2	0	13	10	25	95
	0.0	0.0	6.15	15.89	16.46	11.97	20.00	5.26	9.80	17.39	13.70	14.12	0.0	3.57	0.0	12.75	11.63	7.44	10.86
계	12	21	65	107	79	284	20	19	51	92	73	255	26	56	67	102	86	336	875
	4.22	7.39	22.89	37.68	27.82	100.00	7.84	7.45	20.00	36.08	28.63	100.00	7.74	16.66	19.94	30.36	25.60	100.00	100.00

- 주: 1) F1-일제문화의 잔재, F2-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F3-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F4-가족법 개정 및 절차, F5-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F6-유럽-여성계간 여론분열.
- 2) <표 2>의 기사 수 총계와 <표 3>의 프레임 총계가 다른 것은 1개의 기사가 2개 이상의 프레임울 가질 수 있도록 코딩했기 때문이다. 가령 칼럼이나 사설에서는 보통 2개 이상의 프레임이 등장하며,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각 정당의 입장이나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함께 언급될 때 프레임의 수는 늘어나게 된다.

<표 4> 신문사별 등장인물 비교

	등장인물			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일반인	27(12.44%)	43(19.28%)	50(15.20%)	120(15.60%)
시민단체 (유림, 여성단체 등)	60(27.65%)	36(16.14%)	79(24.01%)	175(22.76%)
전문가	15(6.91%)	22(9.87%)	51(15.50%)	88(11.44%)
법조계	38(17.51%)	34(15.25%)	40(12.16%)	112(14.56%)
정부(국회의원 포함)	77(35.48%)	88(39.46%)	109(33.13%)	274(35.63%)
계	217(100%)	223(100%)	329(100%)	769(100%)

3) 호주제 관련 사설의 프레임 분석 결과

뉴스 프레임의 분석에 있어 언론사의 사설은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사설은 언론사가 호주제 존폐 논의와 같은 사회적 논쟁 이슈에 대해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세 신문 모두 호주제 폐지 논의의 전개기서 호주제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사설에서 가장 우세한 프레임은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n=23, 전체의 53.49%)이었다. 국민일보와 조선일보는 전개기에서 마무리기에 이르기까지 호주제 관련 사설의 수를 늘려가는 추세를 보이나, 한겨레의 경우 전개기와 마무리기에 더 많은 수의 사설을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겨레의 경우 호주제 존폐의 논의에 있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호주제 사안에 접근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사회의 반영 프레임(n=4)이 부각되었다. 이에 반해 국민일보의 경우 유림-여성계간 여론분열 프레임(n=3)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사설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었으나, “호주제, 폐지만이 대안인가(2003년 8월 23일자)”에서는 호주제와 가족제의 전면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만이 대안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전까지의 국민일보의 다른 기사유형 보도에서의 폐지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는 상반된 예외의 경우로 목격되었다. 이에 반해 한겨레는 “호주제 폐지는 당연하다(2003년 8월 23일자)”에서 남성중심적인 법제의 개선만이 남녀차별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호주제를 남녀차별을 합법화해온 대표적인 악법임을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세워야(2003년 8월 23일자)”에서는 민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가족변화에 따른 법적·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개념이 무너지면 가족안에서 이루어지던 부양 관행과 정서적 유대를 사회복지 제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는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표 5> 신문사별·시기별 사실의 프레임 비교

	사실									계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3시기 (n=1)	4시기 (n=4)	5시기 (n=5)	3시기 (n=2)	4시기 (n=2)	5시기 (n=2)	3시기 (n=7)	4시기 (n=3)	5시기 (n=6)	
일제문화의 잔재								1		1 (2.33%)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1	4	1		6 (13.95%)
정치적 성향 파악의 잣대	1		1	1					1	4 (10.81%)
가족법 개정 및 절차	1				1	1			3	6 (9.30%)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1	2	4	1	2	1	5	3	4	23 (53.49%)
유림-여성계간 여론분열		2	1							3 (6.98%)
계	3	4	6	2	3	3	9	5	8	43 (100%)

n: 기사의 수

호주제 존폐의 사안에 대해 국민일보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호주제를 시대적 윤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폐지로 가는 것에 찬성의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혼란과 가족의 유대 및 전통 가족양식의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의 경우에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호주제 자체적 속성으로서의 남녀차별의 근본적 원인으로 혹은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호주제를 프레임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호주제 논의의 마무리기에 들어서 세 신문사는 호주제 논의에 대한 각사의 논조를 가장 명확히 한다. 같은 시기의 사설을 살펴보면, “호주제 폐지, 그 후에 할 일(한겨레, 2005년 3월 3일자)”과 “호주제는 사라져도 가족가치는 지켜져야(조선일보, 2005년 3월 3일자)”의 경우 한겨레는 호주제 논의가 매우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이었지만 호주제 폐지 결정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행복에 기여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는 반면 조선일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복지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조선일보는 호주제의 순기능이 사회적으로 사라졌을 경우 가족의 틀과 유대, 책임을 돕는 격려와 인센티브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대법원에서 성년 여자도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갖는다는 판결이 난 시기를 전후하여 “양성평등 진전시킨 ‘딸들의 반란’(한겨레, 2005년 7월 22일자)”, “출가한 딸도 종친이란 대법 새 판결의 의미(조선일보, 2005년 7월 22일)”,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돼야(국민일보, 2005년 7월 21일)”의 사실이 실렸다. 한겨레의 경우 여성이 종중의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로써 사회문화적으로도 여성의 권리향상을 강조한다. 조선일보의 경우 종중이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보고 호주제도 폐지되었듯이 가족제도가 변화하면 다른 분야도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새로운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일보는 법원이 과거의 판례에 얽매이는 경우

가 많고 법조계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4) 신문사별 주제·사건중심적 프레임 분석

뉴스 프레임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호주제 존폐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 보면, 사건중심적인 프레임보다 주제중심적인 프레임이 우세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신문사별 주제·사건중심적 프레임 비교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계
주제중심 프레임	60(28.44%)	63(30.73%)	85(30.80%)	208(30.06%)
사건중심 프레임	49(23.22%)	41(20.00%)	66(23.91%)	156(22.54%)
주제+사건중심 프레임	102(48.34%)	101(49.27%)	125(45.29%)	328(47.40%)
계	211(100%)	205(100%)	276(100%)	692(100%)

호주제 자체의 속성상 민법이자 고유의 전통으로 인식되어져 온 사안임을 감안할 때 언론은 이에 대한 폐지 논란을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세 신문사의 언론보도를 프레임 형식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주제+사건중심 프레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 언론보도는 다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사건의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제중심 프레임과 주제+사건중심 프레임을 적용한 언론보도가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어 독자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와 의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중심 프레임은 사건중심 프레임을 사용할 때보다 사안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의 속성을 강화시켜 보도하였다고 간주된다.

6.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호주제와 관련된 국내 일간신문의 보도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를 대상으로 뉴스 분석 프레임 분석을 시도하였다. 호주제와 관련된 사안은 우리 사회의 여성의 권익과 법적 지위의 향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안이며, 호주제 존폐 여부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긴 시간 지속되었던 만큼 언론보도에서 강조되었던 프레임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여성문제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관행과 문제점들을 세 신문사의 보도유형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뉴스 프레임 분석을 위해 3가지 차원의 6가지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호주제 자체 혹은 존재와 관련된 차원으로 일제문화의 잔재로서의 호주제,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호주제가 있었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정치적·법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정치적 성향 파악의 잣대,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유림·여성계간 여론분열이 도출되었다. 뉴스 프레임 분석은 1990년부터 2005년 7월까지를 잠재기, 발단기, 전개기, 절정기, 결정기로 총 5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세 신문에서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으로서의 호주제 프레임을 우세하게 작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유림·여성계간 여론분열 프레임을 다른 신문보다 많이 적용시켰으며, 일제문화의 잔재로서 호주제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겨레는 호주제 사안과 관련하여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을 강하게 적용시켰으며,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 프레임을 통해 여성관과 가족관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호주제 자체에 대한 차원의 프레임이 우세하다가 정치적 법적 논의 차원으로, 그리고 호주제 폐지를 사회적 논의 차원으로 뉴스 프레임이

옮겨지는 추세를 확인했다. 또한 언론사의 창립 세계관이 언론보도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좌담 및 토론의 형식을 통해 이슈에 대한 다각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여론을 의식한 반면, 한겨레는 초기부터 호주제 폐지 찬성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신문사의 사설에서 호주제 폐지를 어떻게 프레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으며, 특히 호주제는 폐지라는 극단적 조치보다는 점차적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조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칼럼 및 논단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논의들을 게재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호주제 폐지 논란은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읽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호주제는 이 시대의 '경계'를 가르는 주요 화두였음은 분명하다. 특히 여성문제의 발원이자, 한국적 유교문화에서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성운동에 있어 호주제 폐지는 중요한 바람이자 목표 가운데 있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의 프레임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호주제 폐지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 언론은 호주제 자체의 속성에 관한 문제점 및 법적 모순에 기초하는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는 자세보다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이는 호주제가 지니는 여성인권과 관련한 이해보다는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호주제 폐지가 타당하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호주제의 존폐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계기는 무엇보다 대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 되어서야 호주제와 관련한 여성정책 혹은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은 언론의 정치 사안에 집중한 행태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정치적 논쟁의 사안이 아니라면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지적하게 되고, 정치적 사안으로 정치후보자의 자질 혹은 성향을 검증하는 잣대로서 유용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토론회, 설문조사 등에 대부분의 보도자료를 의존하는 언론사의 관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부모 성 같이 쓰기와 같은 문화운동을 사회적으

로 독특한 운동으로 소개하고, 형태를 짚기보다는 아버지의 혈연만을 강조하는 아버지 성 쓰기 체제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은 문화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했다. 넷째, 일반적으로 호주제의 폐해에 대한 언론보도에 있어서 여성은 피해를 받은 주체로서 상징화되거나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해결이 호주제의 폐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족에서의 여성에 대한 권익향상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의 보도를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호주제는 전통과 근대라는 대립적인 시대적 변화 속에서 바라보게 할 것인지, 여성의 사회적 권익 향상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론의 선도자이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언론은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문제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내원 (2001). 지역사회 논쟁, 집단 프레임, 그리고 뉴스매체. 『한국언론학보』, 45-특별호, 190~240.
- _____ (2002). 사회갈등 보도기사의 비판적 읽기: 언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프레임에 대한 갈루아 래터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46권 3호, 5~44.
- _____ (2004). 이라크 추가 파병 보도 『저널리즘 평론』, 통권 17호, 113~150.
- 곽배희 (2003). 호주제 폐지와 21세기의 가족. 『민법(친족편)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법무부·여성부.
- 김경희 (2004). 여성운동 및 연구동향: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전망. 『여성과사회』, 379~392.
- 김선남 (2002). 매매춘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 분석. 『한국방송학보』, 16권 2호, 41~76.
- 김원용·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351-380.

- _____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197.
- 김훈순 (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27권, 63~92.
-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 구성하기: 의료분쟁 보도의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284~315.
- 이준용 (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사회』, 17호, 100~135.
- _____ (2005). 갈등적 사안에 대한 여론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링 모형 검증 연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형성과 해석적 프레임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1호, 133~162.
- 정재철 (2004).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조선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권, 135~162.
- Carragee, K. M. & Roefs, W. (2004). The neglect of power in recent fram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214~233.
- D'Angelo, P. (2002). News framing as a multiparadigmatic research program: A response to Entman. *Journal of Communication*, 52(4), 870~888.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structs in narratives of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 6~27.
- _____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Autumn*, 43(4), 51~58.
- Gamson, W. A. (1990). *The strategy of social pretest*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_____ (1992). *Talking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ety*, 95, 1~37.
- Ghanem, S. I. (1997). Filling in the tapestry. In M. E. McCombs, D. L. Shaw, & D. Weaver (Eds.), *Communication & Democracy*.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3~14).
-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Berkeley, L.A: Univ. of California Press.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_____ &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A study of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Communication Research*, 20(3), 365~383.

Reese, S. D., Gandy, Jr. O. H. & Grant, A. E. (2001). *Framing public life: Perspectives on media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world*. Mahwah, NJ: LEA.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A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Abolition of the Family Headship (*Hoju*) System

Examining Three Major Korean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Min-Kyu Lee

Associat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 Journalism, Chung-Ang University

Su-Jeong Kim

Doctoral Student

Dept. of Mass Communication & Journalism, Chung-Ang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ver news framing of the family headship(*Hoju*) abolition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newspaper articles involving the *Hoju* abolition, which had been printed on the three major dailies, Chosun, Kukmin, Hankyoreh through February of 1990 to July of 2005.

First, the news article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ir lengths, news types, main characters, news framing and systematic framing. Second, the articles that this study looked into were divided into the five major periods when the issue of the *Hoju* abolition in Korean society surfaced as a main social agenda to be discussed. Third,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noticeable frame and unnoticeable frame in each period were analyzed through the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which can also be sub-divided into the six different attributes.

This study found that the *Hoju* abolition as an attribute had developed into political, legal and social fields.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shows that the articles related to the patriarchy abolition showed more dominant frame which reflected the social change or the general tendency of the times. However,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articles in the level of an attribute included more dominant frame which mirrored a male chauvinism society.

It also points out that the articles contained more dominant frame which was be used as a standard to find out the readers' political inclination. The articles also showed the dominant frame which included the revision and legal process of family laws before presidential or general election campaign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re were major differences among the three dailies. First of all, Chosun, regarded the *Hojiu* as a custom by stressing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Hojiu* system to intensify the role and crisis of family if the *Hojiu* will be abolished'. However, Hankyoreh recognized the issue as an important one to improve feminism and female rights by maintaining that 'it is the time to balance the inequality out between men and women with the abolition of patriarchy'. Finally, Kukmin treated the issue as an first step to acknowledge the dignity of females by emphasizing that 'a revision of the law is essential to accept the changing ethics of the times'.

Keywords: family headship(*Hojiu*), framing, feminist movement